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Malgo Hyanggiropge



only by practicing virtue
can we purify our heart
and empty our mind.

11

2021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에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세상 으뜸가는 재산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보현행원품 V

4. 법정 스님 잔소리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가장 깊고 넓은 삼매

6. 불일암 구석구석

울력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십일월에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대구 경남 광주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지난호 <침묵에 기대다>는 법정 스님이 1983년에 쓰신 글입니다.
1993년으로 잘못 표기했기에 바로잡습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11번 접어서 24절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품을 쓰지 않고, 화학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찢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탬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1년 11월 1일 발행, 통권 321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에

첫눈이 내렸다.

거추장스러운 잎들을 훑훑 떨쳐 버리고 알몸을 드러낸 나무와 숲에 겨울옷을 입혀 주려고 눈이 내렸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달력에 의하면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인 11월. 그 11월에 들어서면 나무들은 여름과 가을철에 걸쳤던 옷을 미련 없이 훑훑 벗어 버린다. 나무들이 모여서 이룬 숲은 입동立冬 무렵이면 겨울맞이 채비를 다 끝내고, 빈 가지에 내려앉을 눈의 자리를 마련해 둔다.

누가 시키거나 참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물러설 줄 아는 이 오묘한 질서. 이게 바로 어김없는 자연의 조화造化다. 대립하거나 어긋남이 없이 서로 균형을 잘 이루는 우주의 조화調和다.

첫눈이 내리던 날 숲은 잠잠히 흰옷 입을 길손을 맞아들였다. 내 오두막 난로의 굴뚝도 연기를 피워 올리면서 겨울 친구를 반갑게 맞이했다.

사람들은 첫사랑을 못 잊어한다. 때문지 않아 그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닦여진 아름다운 인정이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초승달 같은 애뜻함과 저녁 종소리 같은 여운을 지닌다. 어떤 관계는 초이를 달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이는 초사흘 달일 수도 있을 것이다. 초나흘이나 초닷새에 이르면 그만큼 애뜻함과 풋풋함은 덜하고 서서히 자기 고집을 드러내어 무디지기 시작한다.

계절만 하더라도 처음 맞이할 때가 가장 신선하다. 초봄과 초여름과 초가을, 그리고 초겨울은 신선한 계절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한여름이나 한겨울, 봄과 가을이 무르녹게 되면 처음 그 산뜻했던 느낌과 분위기는 소멸되고 만다.

화엄경에, ‘초발심시 변성정각初發心時 便成正覺’이란 말이 있다. 최초에 한 마음을 냈을 때 곧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맨 처음 먹은 그 한 생각이 마침내 깨달음을 이룬다는 뜻이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면 뒤를 이어 가지마다 꽃들이 피어난다는 소식消息이다. 꽃이 필 때 매화가 됐건 진달래가 됐건 일시에 다 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맨 처음 꽃망울을 터뜨리고 한 송이가 피어나면 이 가지 저 가지에서 수련수련 잇따라 피어난다.

첫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초지일관初志一貫, 처음 세운 뜻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내 자신에게도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해당될 말이기 때문이다.

“중놈 새끼들 또 지랄이야!”

얼마 전 총무원장 선출을 두고 조계사에서 일부 승려들이 난동을 부린 장면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바로 그 무렵 서울 강남에 불일이 있어 안국역에서 지하철 3호선을 타고 양재 쪽으로 가는데, 내 옆자리에서 신문을 펼쳐 보던 40대 남자가 자기 친구에게 신문을 건네주면서 내뱉듯이 한 소리다.

조계종 승려들의 종권을 둘러싼 난동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잊어버릴 만하면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지랄병처럼 자주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진 부끄러운 작태다.

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조계사 대웅전 입구에서 기자를 만난 74세의 박순주 할머니는 이번 사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젓밥에만 눈이 어두운 스님들은 전체 스님들 중에서 한 줌밖에 안 되거든. 고것들을 어떻게든 쪼까내야 할 텐데…….”

그 할머니의 지적대로 무슨 명분에서건 젓밥(종권)에 눈독을 들인 승려들은 소수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온 강물을 흐려 놓는 그 소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한마디로 출가 수행자로서 일상적인 정진이 결여된 출가 정신의 부재자들이다. 절에 들어와 머리를 깎고 먹물웃은 걸 쳤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바도 없고 선원에서 안정된 정진의 수행도 없이 지극히 세속적인 업만을 익혀 왔을 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그들의 용모와 언어와 동작에 그대로 나타난다.

누구나 처음 입산 출가할 때는 비장한 결심으로 세속의 집을 등지고 절에 들어온다. 그러나 수도 생활이란 걸로 보면 한가하고 편한 일 같지만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에서 이겨 내야 하는 가시밭길이다. 세속적인 자아와 출세간적인 자아와의 갈등에서 단호히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누가 낱알이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타락의 함정이 여기저기에 입을 벌리고 있다. 긴말할 것 없이, 세속의 집을 등지고 나올 때의 그 첫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는 피나는 정진이 따르지 않으면, 그 누가 됐건 ‘젓밥에만 눈이 어두운 한 줌의 중’으로 전락하고 만다.

맨 처음 먹은 그 한 생각最初一念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행자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다. 새롭게 태어남이 없으면 범속한 일상사에 물들어 마침내 부패하고 만다. 이걸 수행자만이 아니다. 스승과 제자, 아내와 남편, 친구 사이도 처음 만났을 때의 간절하고 살뜰했던 그 첫마음을 지키고 가꾸면서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 이것은 거저 되는 일이 아니고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받쳐주어야 하는 인생의 길이다.

첫마음을 잊지 말라.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라.

1998년

2.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선물 받아 가세요

세상 으뜸가는 재산

법정 스님은 '경전읽기 모임'에서 펴낸 《깨달음》에 1987년 11월부터 1989년 3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원고지 30장 분량으로 《숫타니파타》를 옮겨 읽고 그곳에 강론을 실었습니다. “경전을 읽을 때의 상황과 심경을 경전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강론한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우리 맑고 향기롭게 가족에게 선물이 될 만한 구절을 뽑아 전합니다. 법정 스님이 주시는 '세상 으뜸가는 재산'을 꼭꼭 챙겨서 늘 이익되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알라바카 야차가 묻는다.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행이 안락을 가져옵니까?
참으로 맛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을 최상의 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한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다. 덕행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오고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것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을 최상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묻는다.

사람은 무엇으로 생사의 거센 흐름을 건넌다?
무엇으로 바다를 건너며 무엇으로 고통을 극복합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완전히 청정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한다.

사람은 신앙의 힘으로 거센 생사의 흐름을 건널 수 있다. 정진으로 바다를 건너며 근면으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지혜로써 완전히 청정해진다.

다시 묻는다.

사람은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어떻게 재물을 얻고 어떻게 명성을 떨치며 어떻게 친교를 맺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을 때 걱정이 없겠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한다.

거룩한 이들이 열반을 얻는 이치를 믿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총명하다면, 가르침을 들으려는 열망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다.

적절하게 일하고 참을성 있게 노력하는 이는 재물을 얻는다. 성실을 다하면 명성을 떨치고 무엇인가를 줌으로써 친교를 맺는다.

깊은 신앙을 가지고 집에서 사는 사람에게 성실과 자제와 견고와 보시, 이 네 가지 덕이 있으면 그는 내세에 가서도 걱정이 없을 것이다.

3. 법정 스님 따라 하기

보현행원품 V

보현보살의 행과 원을 따라가는 보현행원품 공부, 10월에 이어 갑니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라.
몸만 덩그러니 혼자 남아 있지 말고,
마음으로도 고독을 음미해야 한다.
그것이 곧 비우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 없는 생활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귀한 시간을 귀하게 쓸 줄 모른다.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지 결코 오지는 않는다.
우리 삶의 순간이 지금 이렇게 소멸해 가는 중이다.
경전이나 진리를 담은 책 속에 있는 사상이 우리를 거듭 거듭 형성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다. 정신적으로 깊이 탐구하는 사람은 새로운 샘물만을 끝없이 계속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가장 맑은 샘물을 하나 정하여 그것으로부터 날마다 길어 마시는 것이 더 좋다.

신앙생활을 1년 했으면 그만큼 나아져야 하고
신앙생활을 5년 했으면 그만큼 나아져야 하고
신앙생활을 10년 했으면 그만큼 나아져야 하고
신앙생활을 20년 했으면 그만큼 나아져야 한다.

아홉째 행원은 향순중생(恒順衆生), 곧 늘 이웃의 뜻에 따름이다.
보현보살이 말한다.

“모든 이웃, 곧 일체중생을 섬기고 공양하기를
마치 부모와 같이 하고 스승과 같이 받들며
성자나 부처님과 다름없이 받든다.
병든 이에게는 의사가 되어 주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켜 주며,
어둔 밤에는 등불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을 얻게 한다.
이와 같이 보살은 모든 이웃을 평등하고 이롭게 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이웃의 뜻에 따르는 것은 곧 부처님께
순종하고 공양하는 일이 되고, 이웃들을 존중하여
받드는 것은 곧 부처님을 존중하여 받드는 일이 되며,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된다.
부처님은 자비심으로 근본을 삼기 때문이다.

이웃으로 인해 큰 자비심을 일으키고,
자비심으로 인해 보리심을 내고,
보리심으로 인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넓은 벌판에 서 있는 큰 나무뿌리가
수분을 받으면 가지와 잎과 열매가 무성해지듯이,
생사 광야의 보리수도 이와 같다.
모든 이웃은 뿌리가 되고,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꽃과 열매가 되며,
자비의 물로 이웃들을 이롭게 하면
지혜의 꽃과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이웃이 없다면 보살은 끝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4. 법정 스님 잔소리

몸에 병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있다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다. 비판하여 인생을 쓸쓸히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남들은 건강한 데 자신만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한탄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주변에 적지 않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성인이 말 씀하기를 ‘병고(病苦)로써 양약(良藥)을 삼으라’ 하셨다. 병으로 오는 괴로움이 사실은 자신의 몸을 아끼게 되는 좋은 약이 된다는 뜻이다.

우리의 몸은 이수화풍(地水火風)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하지 않는가? 또 《반야심경》에 나오듯 인간은 오온(五蘊), 즉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라는 다섯 가지 물질적·정신적 요소가 합쳐진 유기적 존재다.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이 닿아 이런 형상을 갖추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긴 것이 몸이기 때문에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고 만다. 이 몸 자체가 무상한 것이다. 늘 변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는가?

몸에 병이 없을 수 없다. 유기체인데 탈이 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병을 앓을 때 믿음만 하지 말고 병의 의미를 터득해 보라. 평소 건강할 때는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앓을 때 생각해 보라.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인간관계는 어떠했는지, 직장에서는 성실했는지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병고 자체가 죽을병이 아니라면 그 병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떠라. 병을 좋은 약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사람의 몸은 허망한 유기체다. 지금은 멀쩡하지만 이다음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본래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늘

건강하기만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다. 건강할 때, 내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잘 살라는 뜻이다. 인생을 무가치한 곳에 쏟아 버리지 말라는 말이다.

육신의 병은 약으로 다스릴 수 있다. 그러나 정신의 병은 약으로 다스릴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허약한가? 옛날보다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 속에 살고 있는데도 체력과 의지는 점점 떨어진다. 그러다가 어떤 것이 몸에 좋다고 하면 하루아침에 모두 그쪽으로 달려간다. 사람이 이렇게 허약하다. 농사짓고 살면서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던 시절에는 땅으로부터 많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흙의 교훈을 몸소 익혔기 때문에 그리 허약하지 않았는데, 자꾸 흙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대지로부터 멀어지니까 허약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 자체가 허약해졌다.

중생의 병은 업에서 나온다. 업이란 무엇인가? 하루하루 익히는 생활 양식이 업이다. 생각과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이 우리를 건강하게도 만들고 병들게도 한다. 그럼 보살의 병은 어디에서 오는가? 《유마경》에 중생이 앓기 때문에 내가 앓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는가? 어머니들은 자식이 아플 때 같이 앓는다. 이게 정상이고, 어머니란 그런 존재다. 어머니는 한 생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신이 낳은 생명이 앓고 있는데 모른 체한다면 어머니가 아니다.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다. 원천적으로 자식이란 모태에서 나온 가지이므로 가지가 앓을 때 뿌리는 앓지 않을 수 없다. 중생의 병은 업에서 오지만, 보살의 병은 자비심에서 나온다. 어머니들은 보살이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돌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선지식이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언짢으면 언짢은 대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지 않는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병고(病苦)로써 양약(良藥)을 삼으라.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가장 깊고 넓은 삼매

우리는 지극한 마음으로
해탈 장자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관찰하고,
보살의 해탈문을 기억하고,
보살의 지혜 광명을 생각하면서
불가사의한 법계문法界門에 깊이 들어갔다.

보살의 널리 들어가는 문을 향해 나아가고,
여래의神通 변화를 밝게 보고,
널리 들어가는 부처님 세계를 이해하고,
부처님 힘으로 장엄함을 분별하고,
보살의 삼매 해탈 경계의 분위分位를 생각했다.
차별 세계가 끝까지 걸림 없음을 통달하고,
보살의 견고하고 깊은 마음을 닦아 행하고,
보살의 큰 원과 깨끗한 업을 일으켰다.

이러면서 점점 남쪽으로 가던 우리 일행은 염부제의 경계인 마리가라 마을에 들어섰다. 해당 비구를 찾아다녔는데, 그때 그가 길가에 가부좌를 하고 앉아 삼매에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숨을 쉬지도 않고 다른 생각도 없어, 몸이 편안히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았다. 해당 비구는 그 몸의 털구멍에서 이승지 세계의 티끌수 광명을 받았다.

그 광명마다 이승지 색상色相과 이승지 장엄과 이승지 경계와 이승지 사업을 갖추어 시방의 모든 세계에 충만했다.

이때 선재동자는 일심으로 해당 비구를 관찰하면서 간절

한 마음으로 그 삼매의 해탈을 생각했다.
불가사의한 보살의 삼매를 생각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편을 생각하고,
작용이 없는 보장엄문普莊嚴門을 생각하고,
법계를 장엄하는 청정한 지혜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지혜를 생각하고,
보살의 자재自在를 내는 힘을 생각하고,
보살의 큰 원을 견고히 하는 힘을 생각하고,
보살의 행을 넓히는 힘을 생각했다.

이와 같이 서서 생각하고 관찰하는 데 하루 낮 하룻밤을 지냈다. 7일 7야, 보름, 한 달, 여섯 달을 지내고 옛새를 더 지낸 뒤에야 해당 비구는 삼매에서 일어났다.
선재동자가 놀라 감탄하며 물었다.

"성자시여, 희유하고 기이합니다.

이와 같은 삼매는 가장 깊고 가장 광대합니다.

이와 같은 삼매는 경계가 한량없고,

신력神力을 생각하기 어렵고,

광명이 비길 데 없고,

장엄이 무수하고,

위력을 억누르기 어렵고,

경계가 평등하고,

시방을 두루 비춥니다.

또 이와 같은 삼매는 이익이 무한해서

모든 중생의 끝없는 고통을 소멸시킵니다.

즉, 모든 중생에게 가난한 고통을 여의게 하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축생을 면하게 합니다.

모든 재난의 문을 닫고

인간과 천상의 길을 열어

인간과 천상의 중생을 기쁘게 하고,

선정의 경지를 사랑하게 하고,
유위有爲의 낙을 늘게 하고,
중생에게 유위에서 벗어나는 낙을 나타내 보입니다.
또한 보리심을 발하도록 하고,
복과 지혜의 행을 늘게 하고,
대비심을 늘게 하고,
큰 원력을 일으키게 하고,
보살도를 분명히 알게 하고,
구경지究竟智를 장엄케 하고,
대승의 경지에 나아가게 하고,
보현의 행을 환히 알게 하고,
보살지地の 지혜 광명을 증득케 하고,
모든 보살의 원과 행을 성취하도록 하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의 경지에 머물게 합니다.
성자시여, 이 삼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해당 비구가 대답한다.

“선재여, 이 삼매의 이름은
넓은 눈으로 얻음을 버림(보안사득普眼捨得)이며,
또는 반야바라밀 경계의 청정한 광명 내지
두루 장엄한 청정문(보장엄청정문普莊嚴清淨門)이라고도
한다. 나는 반야바라밀을 닦았으므로 이와 같은 두루 장
엄한 청정삼매 등 백만 이승지 삼매를 얻은 것이다.”

선재동자가 다시 물었다.

“이 삼매의 경계는 마침내 이것뿐입니까?”

해당 비구가 말했다.

“이 삼매에 들면 모든 세계를 아는 데 장애가 없고,
모든 세계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없고,
세계를 뛰어넘는 데 장애가 없고,

세계를 장엄하는 데 장애가 없고,
세계를 다스리는 데 장애가 없다.
부처님을 보는 데 장애가 없고,
부처님의 광대한 위덕威德을 관하는 데 장애가 없고,
부처님의 자재한 신통력을 아는 데 장애가 없고,
부처님의 광대한 힘을 증득하는 데 장애가 없다.
또 부처님의 공덕 바다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없고,
부처님의 한량없는 묘법妙法을 받는 데 장애가 없고,
부처님의 법 가운데 들어가 모행妙行을 닦는 데 장애가 없
고, 부처님의 법륜을 굴리는 평등한 지혜를 증득하는 데
장애가 없다.
부처님들이 모인 도량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없고,
시방세계의 불법을 관하는 데 장애가 없고,
대비大悲로 시방세계 중생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없고,
항상 대자大慈를 일으켜 시방세계에 충만하는 데
장애가 없다.

또 시방세계 부처님을 보되 만족할 줄 모르는 데
장애가 없고,

중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없고,
중생의 근기를 아는 데 장애가 없고,
중생의 근기와 차별지智를 아는 데 장애가 없다.

선재여, 나는 오로지 이 한 가지 바라밀 삼매의 광명만을
알 뿐이다.

그러나 저 보살들은 지혜 바다에 들어가 법계의 경계를
깨끗이 하며,

모든 길에 통달해 한량없는 세계에 두루하며,

총지總持에 자재해 삼매가 청정하며,

신통이 광대해 변재가 다함없으며,

여러 경지를 잘 말해 중생의 의지처가 되는 일 등, 그같이
미묘한 행이야 내가 어떻게 다 알겠는가.

해당 비구 이야기는 12월로 이어집니다.

6. 불일암 구석구석



덕조 사진

울력

불일암에 겨울 준비가 시작되었다.

겨울은 추운 계절, 산중 암자는 도시와는 비할 바 없이 온도가 내려간다.

동안거가 시작되고 깊은 선정으로 가는 길고 긴 수행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준비할 것은 땀감이다.

오늘 불일암지기 덕조 스님의 상좌들이 소매를 걷어붙였

다. 왼쪽에서 혜담 스님이 지게를 지고 혜용 스님이 일어서는 것을 돕는다. 오른쪽에서는 혜견 스님이 지고 혜송 스님이 밀어준다.

셋째 혜담, 넷째 혜견, 다섯째 혜송, 여섯째 혜용 스님이 힘을 합친다. 합쳐서 하나가 된다. 덕조 스님은 어디 있는가? 이 사진을 찍었다.

7.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십일월에

나뭇잎이 지는 세월
고향은 가까이 있고
나의 모습 더없이
초라함을 깨달았네

푸른 계절 보내고
돌아와 묵도하는
생각의 나무여

영혼의 책갈피에
소중히 끼운 잎새
하나하나 연륜 헤며
슬픔의 눈부심을 긍정하는 오후

햇빛에 실리어 오는
행복의 물방울 튕기며
어디론지 떠나고 싶다

8.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후원 회원 가입 및 후원방법 안내

(사)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두루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려는 이들의 순수 시민 모임으로 100% 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개개인의 형편에 따라 정기 비정기 후원, 후원 금액 결정, 후원 방법 선택(CMS, 온라인, 지로)까지 스스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정 스님의 지혜로운 글이 담긴 알차고 소박한 월간지 <맑고 향기롭게>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후원이 부담되는 분은 연간 최소 경비(1만 원 이상)만 후원해 주시면 월간지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홈페이지, 사무국 방문, 팩스, 전자 우편, 우편을 통해 가입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생활 속의 소소한 고민을 보내면, 손 편지 답장을 해 드려요.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고민과 사연으로 가슴앓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편이나 전자 우편으로 소소한 고민을 보내 주세요. 맑고 향기롭게 향기 우체부 봉사자가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담긴 손 편지 답장을 해드립니다.

보내 주실 곳은 <서울 성북구 선잠로 5길 68 길상사 내 맑고 향기롭게 향기 우체부 앞> 또는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대학 장학생 하반기 장학금 지급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2021년 제2기 대학 장학생 16명을 선발하여, 지난 5월 30일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으며, 상반기 150만 원, 하반기 150만 원 총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장학생 16명이 3개조로 나누어 맑고 향기롭게 취지에 따라 '마음' '세상'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사무국에서는 각 장학생들의 상반기 성적과 사회공헌활동을 평가하여 11월 9일 하반기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 탁상 달력 및 법정 스님 저서 '오두막 편지' 발송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중앙 모임은 10월 말을 기준으로 연간 최소 3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회원님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2022년 탁상달력을 11월 말일 경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후원이 없지만 11월~12월 말 중에 3만 원 이상 후원하신 분은 2022년 1월 중순에 별도로 발송해드립니다.

본회는 2018년부터 탁상용 달력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공동 거주시설이 늘어나면서 벽걸이 달력이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아 분실되는 경우와 우편배달 과정에서 스프링이 파손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입니다.

또 벽걸이 달력이 필요한 분께는 길상사 창건기념법회일(12월 12일, 일요일)부터 길상사 종무실에서 수시로 나눠 드립니다. 길상사에 방문하여 받아 가시면 됩니다.(우편 발송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올해 달력 발송 시에는 후원회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법정 스님의 저서 <오두막 편지> 1권을 함께 보내드립니다.(이 도서는 출판사의 부도로 인해 본회에서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재고 도서입니다.)

간혹 후원회원 중에 개인적인 이유로 우편물 수신을 거부하여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중앙 모임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맑고 향기롭게 연말 김장 나눔 안내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매년 연말에 여러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변의 외로운 분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김장을 담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모여 김장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김치를 납품받고 있는 농가식품(인천김치절임류가공사업협동조합)에서 김장을 구매하여 460여 가정에 각 10Kg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정 : 11월 25일(목) 오전 7시 ~ 오후 2시

장소 :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

(김장 나눔 활동과 더불어 달력 우편 발송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월 중앙 모임 정기 활동 안내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지원 활동 : 3일(수)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달력 우편 발송 포장 지원 활동 : 25일(목) /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향기우체부 소모임 : 격주 금요일 / 오전 10시 /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매주 목요일 / 오전 10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연말 김장 나눔 활동 : 11월 25일(목) / 오전 7시 ~ 오후 2시 /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생태 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정기 재정 후원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서울 지방 변호사회 결연 청소년 지원. 인도 다람살라 집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니 처음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은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봉사 활동 ● 홀로 어르신 밑반찬 정기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 조리 활동(10시~13시), 배달 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 시설) 정기 방문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 도움, 빨래 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정기 방문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 재료 다

듣기, 청소 등

● 모임 ● 시민서로배움터 : 대구 모임 3층 비정기 강좌 개최 ● 법정 스님 책 읽기 모임 :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 지원 사업 ● 햇살청소년 지원 사업(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 정서 지원 프로그램)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봉사 활동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보림청소년문화의집) : 저소득층 초·중·고·대학생 공부방에 학습 지도 및 간식 지원 ● 천연 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모임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 저녁 7시 / 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 오전 11시

● 후원 활동 ● 결연 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밑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봉사 활동 및 사육 청소 봉사자 수시 모집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봉사 활동 ● 점심 공양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고령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모임 ● 독서 모임 :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노래 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천연 화장품 만들기 : 천연 세숫비누, 빨랫비누, 천연 화장품 만들기

● 후원 활동 ● 장학 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학비 지원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 월간 소식지 발송 : 매월 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9. 가난한 절

길상사 소식 (02)3672-5945/전송:(02)3672-5947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일시 : 11월 6일(토) /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 코로나19 성행으로 인해 강화된 종단 지침에 따라 이번 다라니기도는 비대면으로 봉행되어 신도분들께서 직접 법당에 참석하실 수 없고, 길상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시에 중계됩니다. / 9월~11월 다라니기도는 입시생을 위한 특별 축원도 포함되오니 2022학년도 수능 입시생 자녀를 둔신 부모님들의 기도 동참 부탁드립니다.

초하루기도 / 법회 일시 : 11월 5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공덕추 길상화 보살 기일 일시 : 11월 11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추계관음기도 및 입시기도 회향 일시 : 11월 18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동안거 결제 일시 : 11월 19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일시 : 11월 22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일시 : 11월 28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11월의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 기도명/법회 | 날짜 | 시간 | 장소 |
|------------------|---------|---------------------------------|-----|
| 초하루기도 | 11월 5일 | 오후 9시 50분 | 극락전 |
| 다라니기도 | 11월 6일 | 오후 6시 ~ 8시 30분 | 극락전 |
| 길상화 보살 기일 | 11월 11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추계관음기도 및 입시기도 회향 | 11월 18일 | 오전 9시 50분 | 지장전 |
| 동안거 결제 | 11월 19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지장재일 | 11월 22일 | 오전 9시 50분 | 지장전 |
| 극락전 기도 | 매일 |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 극락전 |
| 지장전 기도 | 매일 |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 오후 6시 | 지장전 |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을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 KEB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